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 2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리라
- 3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 4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7월 3일(금) 기도 담당 : 용태순 집사

2020년 7월 2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찬 송 91장 다 같 이
- 기 도 배선호 집사
-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3장 1~10절 인 도 자
- 설 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신기 목사
-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 찬 송 321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1~10>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7월 2일(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의 여파와 남북관계의 악화, 불안한 국제정세 등,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야할 길과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사 억압과 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하루속히 놓임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문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교역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새문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